

서울시민 한달 143만원 소비... 서초구 202만원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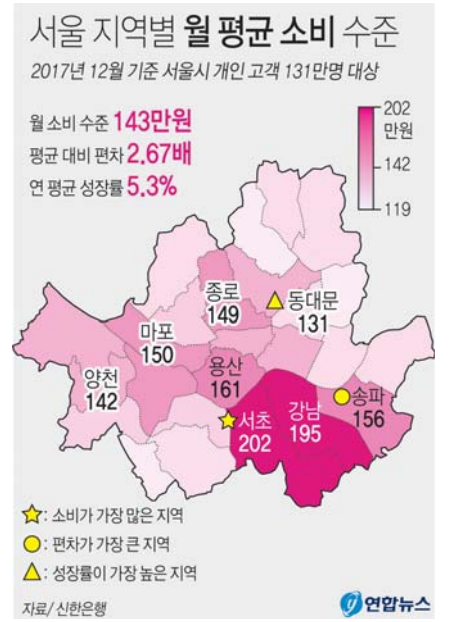
신한銀, 생활금융지도 소비편
60대 현금·40대 카드 사용 많아
강남구 195만원·용산구 161만원
사회초년생들 한달 150만원 소비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서초구의 소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여소득자 중에서는 직장이 중구에 있는 이들의 소비수준이 높았다. 현금은 60대가, 신용카드는 40대, 체크카드는 20대가 주로 썼다. 신한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 소비편'을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개인 고객 131만명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 이중 급여소득자는 88만명이었다. 소비는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렌탈비 등 고정성 소비와 현금, 의료비,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등 변동성 소비로 구분해 분석했다. 서울시민의 한 달 소비금액의 평균은 143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가 소비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초구가 20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95만원, 용산구 161만원, 송파구 156만원 순이었다. 서초구 가운데 반포동이 22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이 302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에

서는 도곡동(244만원)과 대치동(203만원)의 소비수준도 만만치 않았다. 또 급여소득자의 한달 소비금액은 179만원이었다. 직장이 중구에 있는 급여소득자의 한달 소비금액이 2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 238만원, 강서구 235만원, 영등포구 234만원, 서초구 23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초년생의 소비금액은 월 150만원이었다. 사회초년생의 소비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항공사와 공항 등이 있는 강서구 공항동(231만원)과 기업 본사가 많은 중구 장교동(225만원)이었다. 항목별로는 서울시민은 공과금에 4만원, 현금으로 20만원, 신용카드로 76만원, 체크카드로 26만원을 썼다. 이중 현금

과 신용카드 소비는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28만원, 1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체크카드는 관악구가 28만원으로 최고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165만원), 30대(163만원), 60대(129만원), 70대(93만원), 20대(85만원) 순이었다. 20대 소비수준이 제일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와 강서구로 97만원이었다. 현금소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60대가 5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용카드는 40대에서 9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체크카드의 경우 20대가 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왕십리역~상계역 '동북선 철도' 내년 착공

16개역 총 연장 13.4km 지하에 건설
BTO방식 추진... 2024년 완공 목표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서울 동북권 총 16개 역을 잇는 '동북권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이 본격도에 올라, 내년에 착공될 전망이다. 이 동북권 철도는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 지역을 관통한다. 왕십리역~제기동역~고려대역~미아사거리역~월계역~하계역~상계역까지 총 연장 13.4km로,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되며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이 들어선다. 5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현대엔지니어링 성장록 대표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주)가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동북선경전철(주)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대표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현대로텐, 두산건설, 금호산업, 갑을건설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동북선경전철(주)의 대표회사다. 협약식에는 주요 출자자인 현대로텐 김승태 대표이사, 두산건설 이병화 대표이사, 금호산업 서재환 대표이사, 갑을건설 박찬일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주)과 협상에 들어간 지 2년6개월 만에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시는 연내 시설설계에 들어가는 동



시에 착공을 위한 각종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착공,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 동북선경전철(주)와 협상에 들어가 작년 7월 최종협상을 완료했다. 이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등 내부심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민간이 건설하고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동북선경전철(주)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서울시에 양도되며, 동북선경전철(주)가 30년 동안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은 없다. 총사업비는 약 9895억 원(2007년 1월 기준)으로, 동북선경전철(주)가 50.1%를 부담하고 나머지 49.9%는 재정(시비 38%, 국비 11.9%)이 투입된다. 동북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약 46분에서 약 22분까지 단축(2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역(4호선)에서 왕십리역(2·5호선)까지는 환승 없이 25분 만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4호선→2호선 환승으로 37분 정도가 소요된다. 지하철 1호선(제기동역), 4호선(상계역, 미아사거리역), 6호선(고려대역), 7호선(하계역), 경원선(월계역), 2·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왕십리역) 등 9개 노선(7개 정거장)으로 환승이 가능해 이용 시민들의 편리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일일 이용객이 21.3만 명(30년 평균)이 예상되어 출·퇴근시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등의 이용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맺음으로써 동북권 주민 숙원인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편의가 향상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 냉면값 9000원 육박... 1년새 11% ↑

평균 8808원... 인상률 1위 차지

여름을 책임지던 서민 음식 냉면 가격이 9000원에 육박하며 1년 새 10% 넘게 오르는 등 주요 음식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1년 새 올랐고 1개만 지난해와 같았다. 가격이 내린 메뉴는 하나도 없었다.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80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962원)보다 10.6%(846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8개 주요 조사 품목 가운데 냉면 가격 인상률은 1위를 기록했다. 삼겹살 가격은 200g 당 1만6489원으로 지난해보다 5.6%(868원) 올랐으며, 김치찌개(백반 2.6%), 갈국수·김밥(1.8%), 비빔밥(1.4%), 삼계탕(1.1%) 순으로 많이 올랐다. 8개 품목 가운데 자장면만 유일

하게 4923원으로 지난해와 가격이 같았다. 지난달 음식 가격은 전월(5월)과 비교해서도 냉면과 삼계탕이 각각 0.4%와 0.5% 올랐으며 나머지 6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지닌 가정간편식 매출은 급성장세를 보였다. CJ제일제당의 간편식 냉면은 지난달 8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월 매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고, 특히 최고 매출이 발생한 7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 3월 새롭게 선보인 '평양물냉면'과 '시원한 배 물냉면'의 인기도 한 몫 했다. 특히 '평양물냉면'은 서울에서 유명한 한 평양냉면 맛집과 육수 맛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부 유통채널에서 품질상태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이 제품은 지난 달에만 15억원 이상 판매되며, 연간 130억원 규모의 매출을 자랑하는 CJ제일제당의 대표 간편식 냉면 제품인 '동치미 물냉면'의 인기를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연초 간편식 냉면의 연간 매출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성장한 310억원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판매 호조로 목표치를 360억원으로 높였다. 전체 시장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기자 tree6834@



노후고시원 22곳 스프링클러 무료 설치

서울시, 임대료 5년간 동결해야

서울시가 4억원을 투입해 노후고시원 22곳에 총 1568개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시가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 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해당 고시원 22곳은 ▲동대문구(1곳) ▲광진구(2곳) ▲관악구(3곳) ▲강북구(2곳) ▲송파구(1곳) ▲동작구(2곳) ▲은평구(3곳) ▲양천구(1곳) ▲중구(1곳) ▲노원구(2곳) ▲서대문구(1곳) ▲성동구

(2곳) ▲금천구(1곳)다. 취약계층 거주 비율,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처음 7곳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192곳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했고, 올해까지 총 33억여 원을 들여 214곳으로 확대한다. 선정된 고시원은 모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곳여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화재에 취

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5년간의 임대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한 고시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하세요"

이택스 홈페이지 프로그램 무료배포

서울시가 사업자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6일부터 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납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신고납부 프로그램에 신고내역을 등록하면 온라인 전용계좌가 발급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전까지 사업자들은 지방세를 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해 왔다. 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지방세 납부에 들었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세 전자납부에 따라 행정력도 절감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월 평균 5300건의 납부 영수증을 세무시스템에 일일이 수기로 전자 입력해야 했다.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 2주가 소요됐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비전자적 납부를 제도적으로 없애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